

기고

장흥군, 방역시스템 개편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한다

2001년에 개봉해 “내가... 니... 시다바라가?”, “누그 아버지 머하시노?” 등의 명대사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친구>는 방역 소독차 쫓무니를 따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젊은 세대에게는 생소한 장면이겠지만, 중·장년층이라면 어린 시절 소독차 뒤를 신나게 쫓아갔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방역소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소독 연기를 마시면 몸속 세균이나 기생충이 소독된다는 속설 때문에 연기 속으로 뛰어드는 아이를 말리지 않는 부모도 많았다고 한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 연막소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60년대부터다. 이후 오랫동안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지만,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문제가 되면서 친환경 방역 방식으로의 전환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에서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목포, 신안, 장성, 영암, 담양 등 5개 지역이 보건소 주도형 방역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연막소독에서 친환경적인 분무소독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장흥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방역 체계를 개편하고 친환경 방역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장흥군의 방역 소독은 보건소와 읍·면, 그리고 마을별 자율방역단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자율방역단 활동이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면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2024년 장흥군 방역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을의 44%는 월 1회 미만, 56%는 주 1회 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역 빈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방역 기기와 약품 관리도 체계적이지 않아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장흥군은 올해부터 10개 읍·면 중 3개 지역(장흥, 부산, 유치)을 선점해 보건소 주도 방역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소독 방식도 연막소독에서 친환경 분무소독으로 전환하며, 방역 기기와 약품 관리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목적 방제 차량 1대를 신규 구입하고, 전담 인력도 2인 1조로 2개 반을 편성했다. 한 팀은 장흥읍을, 다른 팀은 부산면과 유치면을 맡아 매주 1회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방역 시스템은 시범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장흥군 전역에 점차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보건소 주도형 방역의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방역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일관된 품질 관리와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친환경 방역 방식을 도입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주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방역 방식의 변화는 주민들에게 곧바로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존 연막소독의 강한 연기와 소리에 익숙한 주민들은 조용한 소독 방식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에 장흥군은 시범 지역 주민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방역 소독 요청에도 신속히 대응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4월, 소리 없이 피어나는 봄꽃처럼 조용히 이루어질 친환경 방역 소독,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방역 방식이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장흥군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장 공명희

유난히도 난무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역술에 대한 소문들이, 사실 역술은 인류가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면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정설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형태나 명칭들이 갖가지다. 사당, 무당, 굿당, 법당, 신당, 당집 등으로. 여기에서 당은 신을 모시는 작은 집이라는 뜻이다. 시골에는 마을마다 당집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서울 사대문 안에는 승려 출입이 금지됐기 때문에 사당은 여성이 당집을 운영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여 ‘무교(巫敎)’라고 부르기도 한다.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유난히도 난무하는 역술 판의 이유는

실이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최대의 점술촌은 미아리라고 일대라 한다. 일반적으로 점괘 10만 원에서부터 치솟는 5백만 원은 물론 굿판을 좀 크게 벌이면 1억여 원이 훨씬 넘는 경우도 상당하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1백억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한다. 참으로 희한한 부류라는 생각이 든다. 광주와 전남지역에도 광주전 변을 중심으로 점집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전남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요즘은 시내에서 굿하기가 힘들기에 영이 잘 듣는다는 외진 지역으로 이동해서 굿판을 벌이기도 한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만 한번 굿판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그만큼 정신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인간은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mechanis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신이다. 육체는 단지 정신의 작용에 의해 행동할 뿐이다. 그래서 정신이 기쁘면 육체도 기쁘고 정신이 슬프면 육체도 슬픈 것이다. 때문에 기쁘면 얼굴 등이 그렇게 변하고 슬프면 반대로 일그러지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역술이 유난히도 이 정부 들어서 난무하고 있는 듯하다고 한다. 사실 역술이 판을 치는 경우는 대체로 세상이 뒤숭숭할 때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점술 집이지 않을까.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기 때문이다. 작금의 우리 사회를 봐보라. 하루라도 편한 날이 있는가를. 지금 세계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아군, 적군이 따로 없을 정도다. 미국을 봐보라. 불과 얼마 전인 바이든 정부 시절에만 해도 민주 진영의 핵과 같았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극단적 미국 지상주의로 변해버리지 않았는가.

자국에 유리하지 않으면 적국화 되어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이럴 때는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있는 정치권과 행정부 등 국가기관들이 제 몫을 단단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작금의 상황들은 어떤가. 참으로 가관이지 않은가.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그래서 뒤숭숭한 세상에 대한 분출구로 점집에서 점을 본지도 모른다. 그야말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현상의 난무가 아닐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봄철 부주의 화재를 막기 위한 작은 실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은 봄철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환경이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화재 발생 통계를 보면, 3월부터 5월까지의 봄철에 전체 화재의 28%가 집중되었으며, 봄철 화재로 인한 연평균 인명 피해는 650명, 재산 피해는 1조 5천억

원으로 다른 계절보다 높다. 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다. 산이나 들에서의 무단 흡연,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봄철 산불의 약 60% 이상이 인위적인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각성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주의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담뱃불은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며 입산 시 절대 성냥이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취사 시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취사가 끝난 이후는 주변 불

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은 절대 금지이며 화재가 발생 시 빠르게 119에 신고해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조그마한 불씨가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도록 하자.

완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서한빈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음력 3월 7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for April 4, 2025. Each sign includes a small illustration and a brief text description of their fortune.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